

손끝에서 탄생하는 인간의 삶

이원복 교수의 작업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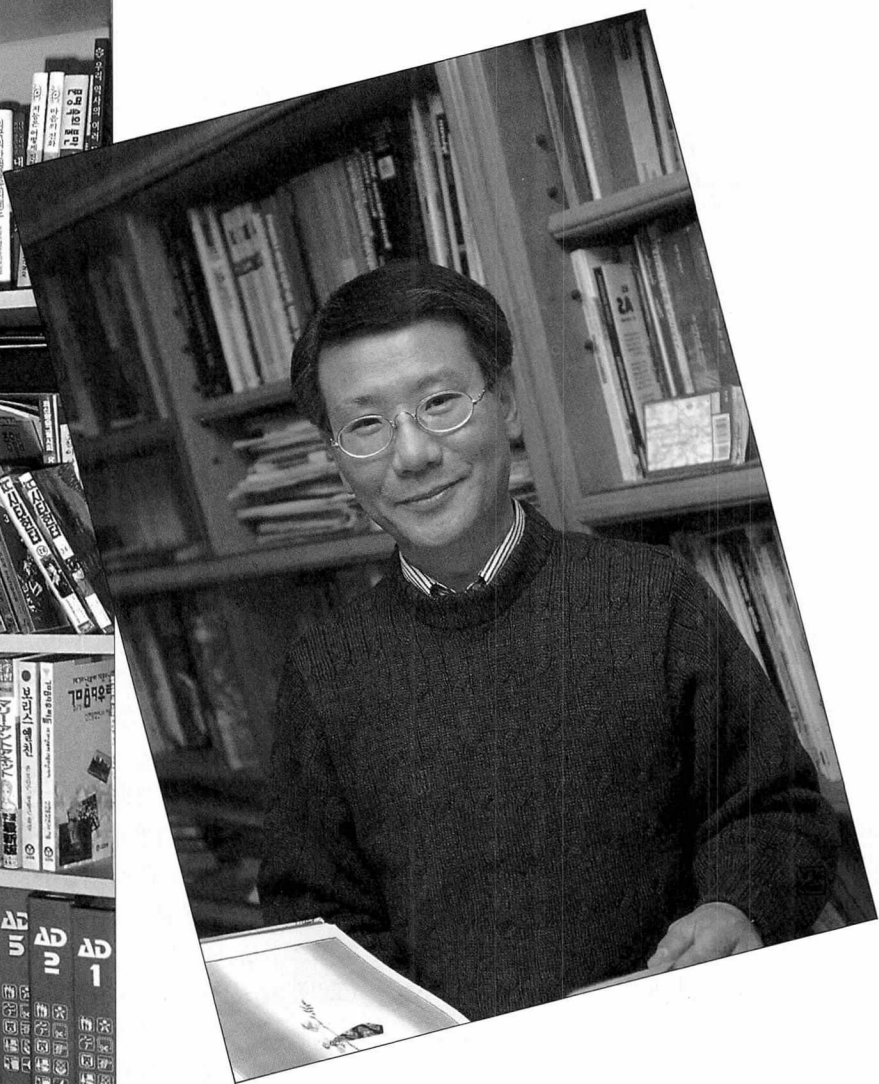


한강변에 위치한 이원복(51, 덕성여대 산업미술학과) 교수의 아파트에서는 7개의 한강다리가 한눈에 들어온다. 그 다리들처럼 이원복 교수의 손끝에서 탄생하는 만화는 문자로 된 부호를 시각언어로 건네 주는 역할을 한다. 일종의 통역작업이다.

이교수는 서울대 건축공학과를 졸업하고 75년 독일로 유학, 뮌스터 대학 디자인학과와 철학부에서 수학하며 프리랜서 일러스트레이터로 일했다. 10년만인 84년 귀국해 현재에 이르는 동안 우리나라 만화의 위상을 격상시키는 데 적지 않은 역할을 했다. 만화는 저급하다는 등식이 통용되던 시절에 대학교수가 만화를 그린다는 사실은 충격이었다. 만화의 주제 또한 상식의 범위를 뛰어 넘었다. 이교수가 만들어낸 '낮습'은 만화의 위력과 가능성을 전파했다.

《먼나라 이웃나라》《자본주의 공산주의》《현대문명진단》 등 대표작을 통해서 쉽게 짐작할 수 있듯이 이교수의 관심은 바로 우리 사회와 사람들의 삶에 놓여 있다. 이교수는 요사이 '21세기 인간의 삶은 어떤 양식을 띠 것인가'를 주제로 한 작업에 한창이다.

집 가까이에서 따로 작업사무실이 있지만 밤 12시가 넘어야 일을 시작하는 습관 때문에 이교수는 대부분 집에서 일을 한다. 집의 가장 안쪽에 자리한 작업실은 생각밖으로 단출하다. 낮은 상포의 검은 잉크병 서너개, 전혀 고급스럽지 않은 철제 펜과 종이 작업도구의 전



부다. 책의 일부가 외부의 작업실로 옮겨가 있어 집에는 작업 중 참고하거나 머리를 식히느라 꺼내보는 만화사전이나 다른 작가들의 작품집이 주류를 이룬다.

펜티엄급의 컴퓨터 한대도 빼놓을 수 없는 친구다. 3년전부터 시작한 컴퓨터 통신 덕을 톡톡히 본다는 이교수는 요사이 인터넷을 통해 외국 유수의 신문들을 그날 그날 검색할 수 있게 된 것이 꿈같다.
- 박남정 기자

① '나이와 시속이 비례하는 것 같습니다'

나이 50이 되니 시간의 속도가 500킬로미터는 되는 듯하다는 이교수는 그러나 앞날에 대한 특별한 계획은 세우지 않는다. 계획없이 살아야 자유롭게 때문이다.

② 만화만큼 기동성 있는 장르는 드물다. 먹과 종이와 펜만 있으면 된다.

③ 인터넷으로 정보를 입수하면서 '세계화'를 실감한다. 예술이든 학문이든 삶이든 열린 마음이 바탕돼야 한다. 외국문화와의 활발한 소통과 교류는 정채된 우리 문화에 환기극 역할을 해주기 때문이다.

④ 이교수가 펴낸 책들. 베스트셀러가 된 책도 여러권 있다.

⑤ 책을 모으고자 애쓰지는 않는다. 역사·철학·자연과학·사회과학 등 다양한 분야의 책이 자유롭게 꽂혀 있다.

